

광주시, 유럽서 '도시 비전' 찾는다

강기정 시장 12일간 출장길...베를린 등 유럽 4개국 6개도시 방문 도시 재생·교통 등 우수 정책 벤치마킹...내년 세계양궁대회 홍보도

강기정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대표단이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박12일간의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표단은 이 기간 동안 독일 베를린·뉘른베르크·라이프치히,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웨덴 말뫼, 덴마크 코펜하겐 등 유럽 4개국 6개 도시를 방문한다.

광주시는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홍보와 도시재생·교통 등 친환경 우수 도시정책 벤치마킹,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한 국제 우호협력력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 등 대표단은 우선 세계양궁연맹(WA)의 공식 초청으로 세계양궁연맹 총회 참석과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면담 등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25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

권대회를 홍보하고, 차기 대회 개최도시 광주의 양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등 '2025 광주세계양궁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독일 베를린의 헤르타클럽, 지멘스 슈타트클럽 등을 방문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친환경 소각시설인 덴마크 아마게르바케, 친환경 자전거 도시 스웨덴 말뫼 등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현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현재 광주시 주요 민원 사례로 꼽히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방안 등을 벤치마킹해 종합적으로 정책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등 글로벌 기업인 독일 뉘른베르크 지멘스(SIEMENS)를 방문, 디지털트윈

기반 산업과 인재양성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국제 우호협력 강화를 통한 도시외교 다각화에도 나선다. 대표단은 우호 도시인 독일 라이프치히와 뉘른베르크의 시장을 각각 만나 국제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뉘른베르크와는 올해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13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독일 통일을 이끈 '평화혁명'과 민주화의 발원지 라이프치히와는 포용도시 정책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 독일 녹색당 부대표를 만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책 논의를 진행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면서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저성장 등 다양한 위기에 놓인 만큼 친환경 도시 스마트 정책과 구도심 활성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유럽 주요 도시의 핵심 성공 전략을 살펴보고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친절 미소란 이런 것" 광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22일 개최한 '항공 새싹 페스티벌'에서 미래 항공 승무원을 꿈꾸는 여고생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상담부터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

광주시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맞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7월 18일)에 대비해 지난해 9월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 경찰과 이미 구축된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협력 체

계를 강화해 초기 지원(상담, 보호, 출동)부터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 등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범죄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해마다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해 시민에게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지역 가정(성)폭력, 디지털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은 상담소17곳, 보호센터 10곳, 자활 지원센터 1곳, 해바라기센터 2곳 등 34곳이 운영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재부품 특구 지정을"

전남도, 정부에 요청...광양시청서 전략산업 육성 토론회

전남도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획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 제2차원화 분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관련 기반 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지난 20일 이차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과 기획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 토론회'를 광양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전남도, 광양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포스코퓨처엠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기획발전특구 지정 전략',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차전지산업 발전 육성 및 고도화 방안'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전남도, 광양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관련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기차 지속 확대와 함께 전동화, 무선화 등 세계 산업동향 변화로 이차전지 성장률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양만권 선도기업과 연계해 소재부품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등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권역별 특장점을 활용해 소재 생산부터 제조,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중부권에는 이차전지 완제품, 응용제품 생산 및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친환경선박, 이(e)-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차전지 전방 수요시장을 보유한 서남권은 대규모 실증 및 사업화 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성 전원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8.2GW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올 상반기 국비 9745억 확보

정부 공모사업 107건 선정...전년 동기보다 1458억 늘어

전남도가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사업',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07건에 국비 974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58억원(17%) 증가한 것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선정의 타당성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23일 "지자체 감소와 정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연초부터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세워 사업 선정을 위해 타사·도보다 상대적 우위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10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 초청 강의 등 맞춤형 노하우 교육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와 신규사업 보고회, 부서 간 상시 공유 등 신속 대응체계가 주요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가고싶은 케이(K)관광성 ▲농촌협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업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국토교통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은 광양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올존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07건에 국비 9745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6822억원 중 3년간 국비 3843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17곳이 선정돼 국비 927억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141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교육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에는 목포대·순천대·전남대 등 광주·전남 국립대학 연합체(컨소시엄)가 선정돼 국비 445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675억원을 투입해 도내 국립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하반기에도 100여 개의 공모사업을 발굴, 준비하고 있다. 국정과제·신성장 4.0 등 전남도 역점시책과 연계할 분야를 선정, 집중 지원해 1조30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발전을 통해 도민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공모사업 적기 발굴 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